

조선 중기 儒醫 李碩幹의 가계와 의약사적 연구 - 새로 발견된 大藥賦를 중심으로 -

오준호, 박상영,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Medical Achievements of Doctor-Lee, Seokgan and Interpretation of the first unveiled 『Daeyakbu』

Oh Jun-Ho, Sang-Young Park,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confirmed that a doctor named Lee, Seok-gan whose name has been widely known but whose real identity has remained unclear, was an active Confucian doctor in the 16th century. In addition, through the newly discovered 『Daeyakbu』 among his family line, writings, and relics that have been handed down in a family, this study looked into his medical philosophy and medicine culture.

The author of 『Ileseokgangyeongheombang』(Medical Book by Lee, Seok-gan(李石澗), Seok-gan is the same person as an active famous doctor Lee, Seok-gan(李碩幹, 1509-1574) in the 16th century. Such a fact can be confirmed through 『Samuilheombang』, 『Saugyeongheombang』 and the newly opened 『Ileseokgangyeongheombang』.

Lee, Seok-gan was born in the 4th ruling year of king Jungjong (1509) and was active as a doctor until the 7th ruling year of king Seonjo(1547); his first name is Jungim with the pen name-Chodang, and he used a doctor name of 'Seokgan.' He was known as a divine doctor, and there have been left lots of anecdotes in relation with Lee, Seok-gan. Legend has it that Seokgan went to China to give treatment to the empress, and a heavenly peach pattern drinking cup and a house, which the emperor bestowed on Seokgan in return for his great services, still have remained up to the present. Usually, Seokgan interacted with Toegye Lee Hwang and his literary persons, and with his excellent medical skills, Seokgan once gave treatment to Toegye at the time of his death free of charge. His medical skills have been handed down in his family, and his descendant Lee, Ui-tae(around 1700) compiled a medical book titled 『Gyeongheombangwhiphyeon (經驗方彙編)』.

Out of Lee, Seok-gan's keepsakes which were donated to Sosu museums by his descendant family, 4 sorts of 'Gwabu'(writings of fruit trees) including 『Daeyakbu』 were discovered. It's rare to find a literary work left by a medical figure like this, so these discoveries have a deep meaning even from a medicine culture level.

Particularly, 『Daeyakbu』 includes the typical "Uigukron". The "Uigukron", which develops its story by contrasting politics with medicine, has a unique writing style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explanatory methods of scholars' posi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e distinctive feature of "Uigukron" is that it was created in the form of 'Gabu' other than a prose.

Key words : 『Ileseokgangyeongheombang』, medical history, Korean medicine, Confucian Doctors

I. 서론

조선시대 의료인들은 대개 중인신분의 기술관이나 잡직

으로 분류되었기에 사대부 집안에선 문무양과 이외에는 현 달한 집안의 표지로 여기지 않았으며, 때로는 의약을 공부 하거나 의업에 종사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였다.宋代 范仲淹이 '不爲良相, 寧爲良醫'라는 논점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조선초에는 사대부나 양반집안의 자제들에게 기술학을 가르쳐 관련 분야에 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펼친 적도

접수 ▶ 2013년 04월 29일 수정 ▶ 2013년 05월 27일 채택 ▶ 2013년 05월 28일
교신저자 ▶ 안상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1-2 동의보감기념사업단
Tel : 02-790-2016 Fax : 02-795-2015 E-mail : answer@kiom.re.kr

있었으나 결국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인 노력이 그치고 조선 중기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신분제가 더욱더 고착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의 실례는 조선 중기 이후 의역관들의 대다수가 서출로 고위직으로의 등용이 제한되었으며, 중인 계급 가계간에 서로 통혼함으로써 직능간의 유대와 기술전승에 있어서의 독점적 권한을 누리려 했다는 데서도 확인 할 수 있다.¹⁾

조선 중기 儒醫로서 활약한 이석간은 세간에 『四醫經驗方』의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구전설화에는 중국에 건너가 황후의 병을 치료하여 명성을 날린 것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가 누구이며, 어떠한 경로로 의학에 입문하여 그의 의술이 책에 기록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근간에 이르러 그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李石澗經驗方』이 발견되어 박물관도록에 수록²⁾되었고 이를 토대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전통의학교전국역총서'의 하나로 연구번역이 수행되면서³⁾ 한의학잡지에 소개된 또 다른 사본⁴⁾과의 비교 연구도 진행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낯선 유의 이석간의 존재와 생애, 그리고 그의 가계와 약간의 행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석간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후손 집안에 전존해온 유물 가운데 이석간이 직접 친필로 작성한 과부가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의약관을 다소나마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에 그의 의학사상을 대변할 「대약부[賦大藥]」를 비롯한 4편의 시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명의 이석간(李碩幹)에 대한 考證

그간 조선 중기 임상의약을 대표하는 한의 문헌으로서 『四醫經驗方』을 손꼽아 왔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의 의사들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명의로 회자되어 왔다. 하지만 鍼醫로서 『鍼灸經驗方』을 펴내 잘 알려진 許任 이외에는

이들 명의의 행적이 소상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넷 가운데 첫 번째로 거명되는 이석간 역시 당대에 이름을 날린 명의로 추정되지만, 정작 '이석간'이란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실마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李石澗經驗方』이 새로 발견되어 국역되면서⁵⁾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지만, 표제의 '이석간(李石澗)'이 『사의경험방』의 '이석간(李碩幹)'과 동일 인물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필자 또한 상당기간 동안 이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덜어 버릴 수 없었으며, 몇몇 관련 글에서 이석간이란 의학인물이 누구인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몇 가지 추정만을 제시해 왔었다. 『이석간경험방』의 발견⁶⁾을 계기로 『사의경험방』에 등장하는 李碩幹과 『이석간경험방』의 李石澗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책은 그 서명에서 나타나있듯이 李石澗이란 인물의 경험의학사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석간과 발음이 같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름자를 쓰고 있어 동일인임을 확정할 수 없었고 그 어느 것이 본명인지, 아니면 아호인지, 혹은 와전이나 오류일 가능성도 있어 쉽게 예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경험방에 나오는 李石澗이 실존인물인 공주 이씨 이석간(李碩幹, 1509~1574)과 동일인물임을 확정하게 되었다.

우선, 李石澗이 李碩幹과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 『三意一驗方』⁷⁾을 통해 확인되었다. 『삼의일험방』은 서두에서 책에서 李碩幹·蔡得已·朴濂 3명의 의학 경험을 모아 놓은 서적임을 밝히고 있다. 책의 본문을 보면 '鶴方', '悟方', '東醫' 등과 같이 처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출전을 기록해 놓았는데, 李碩幹의 처방에는 '石方' 혹은 '石澗'이라고 표현해 놓았다. 이를 보면 최소한 『삼의일험방』에서는 '李碩幹'과 '李石澗'을 동일 인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李碩幹'이란 이름이 '李石澗'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단지 전사 오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름자이고 또 여러 차례 반복되기에 단순한 오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李石澗'은 양반가에서 태어나 儒學을 공부하였던 선비 '李碩幹'이 의원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던 일종의 '醫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본래 이름자를 그

1) 김양수, 안상우, 연세대 국학연구소, 2005.
2) 안상우 외,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산청한의학박물관, 2008.
3) 이석간 저(안상우 등역), 『국역 이석간경험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4) 류희영, 「이석간 경험방」, 황제의학, 1976-1978. 6회 연재
5) 이석간 저(안상우 등역), 『국역 이석간경험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6)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품 도록을 펴내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발견되었다.
7)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 『田園必考』의 원문 참고.

대로 借音하면서도 본명인 ‘碩幹’이라는 이름자에서 보이는 ‘커다란 줄기’ 같은 존재라는 의미와 대비되게 계곡 사이의 좁다란 시내가에 의지해 산다는 뜻에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덧붙여 사용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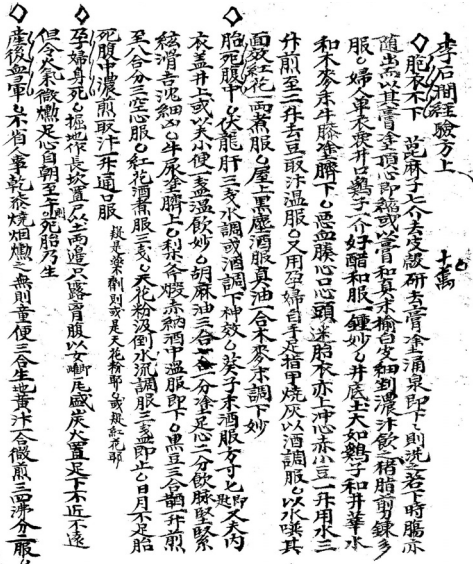


그림 1. 『李石澗經驗方』 서두

『이석간경험방』의 존재에 대해서는 민족의학신문⁸⁾와 산청한의학박물관 도록의 고전적 상세해제⁹⁾에서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석간이라는 인물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간 『四醫經驗方』이나 『三意一驗方』의 공동 저자로서만 등장할 뿐 행적이 자세히 밝혀진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중기 명의 네 사람이 등장하는 여러 이중 사본류에 대한 갖가지 소개 글마다 추정에 따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실리게 되었던 것이다.¹⁰⁾ 그간 石澗, 또는 石欄이라는 비슷한 아호를 사용하는 몇 사람의 인물 즉, 李纘, 李燦¹¹⁾ 등과 혼동하기도 하였다.¹²⁾

역사기록상 이석간에 대해 알려진 것은 字는 仲任, 號가 草堂으로 생원 李誠의 아들로 태어났다.¹³⁾는 것 정도이다. 이를 단초로 더듬어본 결과 그는 영천(榮川, 지금의 영주) 사람으로 公州李氏였다. 이석간의 세계가 등장하는 『公州李氏 恭肅公派譜』에는 이석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자는 중임(仲任)이다. 중종(中宗) 기사년(己巳, 1509)에 태어났다. 갑오(甲午, 1534) 식년시(式年試)에 진사에 입격하여 참봉에 제수되었다. 선조(宣祖) 갑술년(甲戌, 1574) 3월 20일에 죽었다.¹⁴⁾

영주의 지역문화를 다루고 있는 『榮州榮豐鄉土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의(神醫)로 많은 일화(逸話)를 남기고, 중국황제(中國皇帝)가 상사(賞賜)한 천도(天桃) 술잔도 보존
자는 중임(仲任). 생원 함(誠)의 아들. 중종 4년(1509)~선조7년(1547). 중종 29년(1534) 진사(進仕)시 합격, 동 36년(1541)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나, 곧 물러왔다. 그는 의술로 고명하여, 여러 신기한 일화를 남겼으나, 문헌에는 그런 사실이 전하지 않는다. 명나라 황태후(皇太后)의 괴이한 병을 고쳐주고, 황제에게서 받았다는 천도(天桃)씨로 만든 한 쌍의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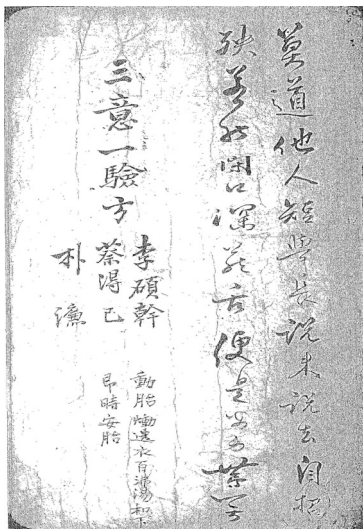


그림 2. 『三意一驗方』 속표지의 李碩幹

8) 안상우, 「고의서산책286 李碩幹經驗方」, 민족의학신문, 2006.03.31.
9) 안상우 외,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산청한의학박물관, 2008. 「서명에 드러나 있듯이 조선 중기의 명의 이석간이 평소 사용한 경험처방을 모아 놓은 간이방서이다. 다만 별도의 해설을 달아놓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세한 서지정보나 입수경위를 추적하기 어렵다. 이석간의 경험방이 수록되어 있는 『삼의일험방三意一驗方』이나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이 침구처방을 위주로 하여 여러 사람의 경험을 모아 합본한 것인 반면 이 책은 주로 탕약이나 외용의 약물처방을 많이 실고 있다. 또한 내용이 사뭇 달라 상세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10) 안상우, 「고의서산책431-432 石澗集①,②」, 민족의학신문, 2009.09.21. 09.28.
11) 「의약동참선생안」에 용궁이씨로 호 石欄, 工曹正郎을 지낸 유의.
12) 산청한의학박물관 도록, 연세대 고서해제 등.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14) 『공주이씨 공숙공파보(公州李氏 恭肅公派譜)』 “字仲任. 中宗己巳生. 中宗甲午試進仕參奉. 中宗甲戌三月二十日卒”

간이 가보로 보존되고 있다. 당대 명사들과 사귀었다.¹⁵⁾

그는 당시 “동방의 편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술이 뛰어났으며,¹⁶⁾ 평소 퇴계 이황과 그의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퇴계선생 임종시 곁에서 施療를 펼치기도 하였다.¹⁷⁾ 그의 의

술은 후대에 家傳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후손인 이의태(李義太, 1700년경)가 『經驗方彙編』¹⁸⁾ 을 남긴 사실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주이씨 공숙공파보』를 바탕으로 그의 가계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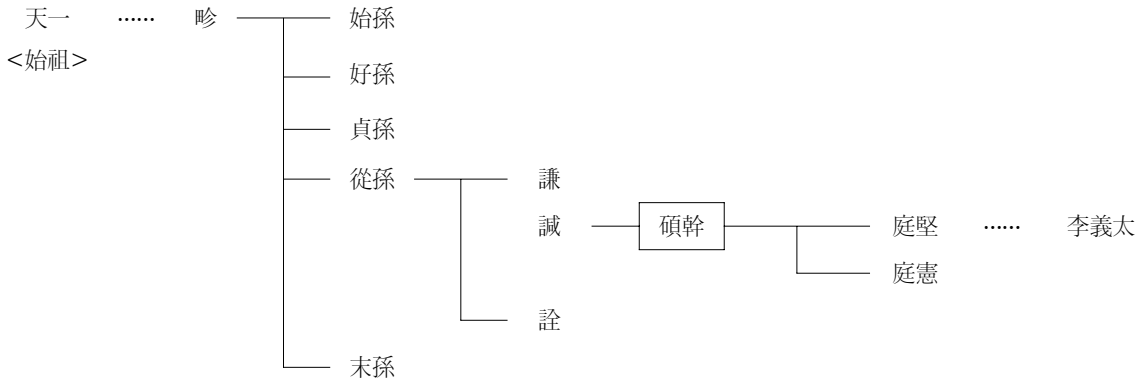


그림 3. 李碩幹의 가계도

2. 이석간 관련 의학문헌과 의학사적

현재 이석간과 관련된 의학문헌으로는 『李碩幹方』, 『三意一驗方』, 『四醫經驗方』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중 『李碩幹方』은 이석간 자신의 경험방만을 모아 놓은 것으로 친작 혹은 그의 제자나 후손이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그의 단독 저술은 널리 유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790년 李景華가 저술한 『廣濟秘笈』 「引據諸書」에 “李碩幹方一卷”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경험방이 후대로 전승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후 사료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활발히 유통된 서적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에 비해 『三意一驗方』과 『四醫經驗方』은 이석간의 경험방을 필두로 채득기, 박렴, 그리고 허임의 경험방을 한데 모아 병증분류에 따라 편배하여 재판한 일종의 편집 의서

로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간에서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후대의 저작으로 판단된다. 특히 허임의 경험방은 생존시기와 활동연대로 보아 이석간의 그것과는 상당기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데 어우러진 『四醫經驗方』은 민간의 현실적 의료수요와 네 사람 명의의 지명도에 동반 상승하여 오래도록 민간에 널리 유통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의일험방』의 경우,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석간, 채득기, 박렴 3명의 의사들의 경험방을 후대 사람들이 모아 엮은 경험방서로 이 책에는 이석간의 경험방을 ‘石澗’으로, 채득기의 경험방을 ‘鶴方’으로, 박렴의 처방을 ‘梧方’으로 표시해 놓았다. 『사의일험방』의 경우 목판본과 필사본이 존재하며 『삼의일험방』에 許任의 경험방이 덧붙여져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이석간경험방』, 그리고 문헌에 나타난 『이석간방』이 동일한 서적인지, 또 『삼의일험방』과 『사

15) 송지향. 『영주영풍향토지』. 서울 : 여강출판사. 1987 : 336-342.

16) “또 의술로 이름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동방의 편작’이라고 하였다. 又醫術名, 世謂東方扁鵲.” 『榮州誌』 「蔭仕」. 榮州誌發行所. 1957.

17) 權好文, 『松巖先生文集』 「遊清涼山錄」 “1570년(선조 3) 12월 3일, 다시 여러 봉우리를 둘러보기로 하고 아침을 막 먹으려는데 문득 승려가 이봉원(李逢原)의 편지를 전하니 선생님[退溪]의 병환이 위독하시다는 것이었다. (중략) 구성(龜城)의 참봉 이석간(李碩幹), 기성(箕城)의 생원 민응기(閔應祺), 분천(汾川)의 판사 이연량(李衍樑) 등이 모두 모여 맥을 짚고 약을 조제하였으나 조금도 효과가 없었다. 이때 집 안팎에서 함께 시중 든 사람이 칠십여 명이었으나 여러 사람의 정성이 통하지 못하고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8일 신축일에 선생님은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丙申, 又欲遍覽諸峯, 纔學朝盤, 忽有僧傳李逢原之簡, 爲先生病革也, (中略) 龜城李參奉碩幹箕城閔生員應祺汾川李衍樑判事皆會, 相與觀脈劑藥, 而略無見效, 時同侍門庭者, 七十餘人, 而衆誠未徹, 天不降弔, 八日辛丑, 先生卒于正寢.”

18) 前間恭作的 소장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어디에 소장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三木榮. 『朝鮮醫書誌』. 學術圖書刊行會. 1973:117-118.

의경험방』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석간은 영주 지역 선비들의 자치조직인 濟民樓에서 醫局을 설치하고 약재를 비축하여 구료활동을 벌였다. 현재 이들이 활동했던 <濟民樓誌>에 의하면 1554년부터 座目이 기록되어 있으니, 적어도 450여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지역의 자치의약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드문 기록물이다.¹⁹⁾

이석간과 관련된 의학사적은 영주 인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명나라 皇太后的 괴이한 병을 고쳐주고 황제에게서 받았다는 天桃 씨로 만들었다는 한 쌍의 술잔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가 황태후를 치료한 공에 대한 보답으로 하사받았다고 전해지는 아흔아홉칸 대저택의 일부가 남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진의 방문 조사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이석간이 젊은 시절 사마시에 응시해 직접 쓴 과부(科賦)가 그것이다. 그간 본 연구진은 앞서 밝힌 바 있는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이석간경험방’에 대한 연구와 저자 이석간에 대한 인물연구 차원에서 후속 연구를 진행하던 중, 오랜 수소문 끝에 후손과 연락이 닿아 종종에서 가문에 오래 동안 보존해 오던 고문서와 유물을 일괄하여 소수박물관에 기탁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후손들은 일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이외에는 의약문헌이나 관련 사적을 알고 있지 못했으며, 따라서 기탁한 유품 가운데 의약사적과 관련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소수박물관을 방문 조사하여 이석간이 쓴 科賦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4. 이석간 과부의 모습

이 전지로 된 과지에 ‘賦大藥’(이하 大藥賦로 통칭)이라

는 제목이 쓰여 있다. 본문에 앞서 오른쪽 맨 앞에는 다음과 같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의인 이석간의 출신과 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근거자료이다. 후대 여러 차례 속간과 증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오류가 혼입되는 족보자료에 비해서 당대의 공식 기록이기에 가장 정확한 인적자료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작성 후 제출시 접어서 가려진 다음, 채점이 끝나고 공개된다. 제목 아래에는 다른 서체의 커다란 글씨로 ‘三之九’라는 성적이 기입되어 있다.

幼學 李碩幹 本公州
父 成均生員 誠
祖 進勇校尉虎賁衛副司正 從孫
曾祖 宣務郎 臨陂縣令 畛
外祖 成均生員 權士彬 本安東

이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이력사항을 통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부, 조, 증 3대를 적는 규례에 따라 그의 직계 가문을 확정할 수 있다. 앞서 가계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증조인 李畛으로부터 조부 李從孫, 부 李誠으로 이어진 위로 3대의 직계가 적혀 있는데, 成均生員을 지낸 부친 誠, 進勇校尉(서반의 정6품) 虎賁衛 副司正직에 올랐던 조부 從孫, 宣務郎(동반의 중6품)으로 臨陂縣令을 지낸 증조부 李畛까지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분명 내리 3대에 걸쳐 관직에 오른 반가임을 알 수 있다. 또 외가도 기재되어 있는데, 외조부인 權士彬은 안동 권씨로 생원시에 합격해 성균관에 들었으며, 이석간의 모친이 안동권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부에는 작성시기가 명문으로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다만 족보 등 다른 기록에 의하면 1509년생인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것은 26세인 1534년인 중종 29년(甲午)이므로 아마도 이때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3. 이석간의 科賦

< 賦大藥 > 大藥賦
惟六氣之致沍兮 육기(六氣)가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지만

19) 안상우, 「교의서산책432 石澗集 ②」, 민족의학신문, 2009.09.28일자.
20) 추환(芻豢): 본래는 풀이나 곡류를 먹는 가축류의 고기를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에서는 학문, 또는 의리(義理)를 뜻한다. 『맹자』 「고자(告子)」 상에 “의리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추환이 우리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했다.
21) 수역(壽域):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일반적으로 태평성대를 뜻한다. 인수(仁壽)는 원래 『논어』 「옹야(雍也)」에 “인자는 장수한다. [仁者

有嘗草之良法	약초로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 있네.	方仰號而俯躋	하늘 보고 올부짚고 땅 보고 한숨짓네.
蘇大命於既危	생명 위독한 상태에서 살려내고	患已甚於疾疾兮	근심은 이미 질병보다 심한 지경이고
凶殘喘於將絕	목숨 끊기려고 하는 순간 숨을 쉬게 하네. -결락-	害亦極於凶盲	해로움도 고향(膏肓)까지 이르렀다네. -결락-
然徒利於一人	그러나 다만 한 사람에게만 이롭고	非鍼石之可療兮	침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지경이니
慨難醫於邦國	안타깝게도 나라 전체에 의술 베풀기는 어렵다네.	矧澹勃之無良	하물며 좋지 않은 하찮은 약임에라.
觀聖凶之撫世兮	성인(聖人)이 세상 보살피는 방법을 살펴보니 -결락-	爰斯藥之一發兮	이 인술(仁術)이라는 약을 한 번 써서
美大藥之仁術	훌륭히도 인술(仁術)이라는 선약(仙藥)이로구나.	濟當時之厄羸	절룩이던 당시 상황 구제하였네.
劑不資於愈扁兮	약 처방에 유부(俞跗)와 편작(扁鵲)의 지하지 않으니	若大旱之時雨兮	큰 가뭄에 때맞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였으니
鍊豈用凶凶砂	단약(丹藥) 제조에 어찌 주사(朱砂)를 쓰겠는가. -결락-	豈刀圭之足凶	어찌 의술로 치료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결락-
因事物之當然兮	사물의 마땅한 이치에 근거하여	如渴者之易飲兮	만일 목마른 자가 쉬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였으니
救億兆之痒癢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구제하지.	孰有病於苦口	누군들 약을 먹어야 할 병이 생겼겠는가.
採義理之芻豢兮	추환(芻豢) ²⁰ 과 같은 의리를 찾아	始完平而舒愉兮	비로소 완전히 다스려져서 나아지니
和德教之梁肉	고粱진미(膏粱珍味)와 같은 교화와 잘 합치시키고,	凶胥樂兮	서로 즐거워하였지. -결락-
擣以股肱之佐兮	신하의 보좌를 뺏아 넣고	黃壽躋壽域而蹈舞兮	온 백성이 수역(壽域) ²¹ 에 올라 춤을 추고
煎以恩澤之波	은택의 물결로 끓이네.	登春臺而嘯歐	봄 누대에 올라 노래 불렀네.
期有成於三年兮	삼년에 성과 낼 것을 기약하여	培元氣於朝廷兮	조정에서 원기를 배양하여
收大效於泰和	태평성대라는 큰 효과를 이루네.	延國脈之悠久	국가의 명맥이 오래도록 이어지네.
豈一指之求伸兮	어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겠는가	彼和風之融融兮	저 조화로운 기풍의 원만함이여
要凶之無邪	사악함이 없도록 해야 하네. -결락-	調四序於玉燭	네 계절의 기운이 화창하구나.
彼疲癯與殘疾兮	저 피골이 상접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無山凶之崩渴兮	산천이 무너지거나 마르지 않고 -결락-
暨鰥寡而孤獨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늙은이는,	乏日月之薄蝕	일식과 월식이 없었네.
悶顛連凶無告兮	불쌍히도 구렁텅이 삶 속에 하소연할 데 없어 -결락-	大哉斯藥之爲用兮	위대하구나, 이 약의 효용이여
		實功效凶無極	실제로 효험이 끝이 없구나. -결락-
		劃長嘯於宇宙兮	우주에 길게 휘파람 불며
		筭前代之得失	전대의 잘잘못을 헤아려보네.
		彼唐虞之天凶兮	저 요순시절 천기(天氣)는 -결락-

壽]”에서 온 말인데, 이를 원용하여 『한서(漢書)』22 「예악지(禮樂志)」에 “구례(舊禮)를 찬술하고 왕제(王制)를 밝혀서 온 세상의 백성들을 이 끌어 인수의 지역에 오르게 하면, 풍속이 어찌 주나라 성왕(成王)과 강왕(康王) 때의 태평시절 같지 않겠으며 수명이 어찌 은나라 고종(高宗)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 했다.

22) 삼대(三代): 하(夏)·은(殷)·주(周) 세 시대를 이른다.

23) 已: ‘근’의 오기인 듯하다.

24) 凶: 결락이 한 글자 더 있어야 한다.

25) 馮夷: 하백(河伯)으로 수신(水神)의 이름인데, 빙이(氷夷)·풍수(馮修)라고도 한다.

26) 어찌...있겠는가: 말이 한 번 입에서 나오면 그 전과가 너무 빨라 사마(駟馬)로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실언(失言)을 애석히 여기는 말이다. 춘추시대 위(衛)나라 대부 극자성(棘子成)이 “군자는 진실하면 그만이지, 어찌 문식할 필요가 있겠는가. [君子質而已矣, 何以文爲?]” 하자, 자공(子貢)이 “애석하도다, 선생의 말씀이 군자답기는 하나, 실수를 한 그 혀는 사마도 따라잡지 못합니다. [惜乎! 夫子之言, 君子也, 駟不及舌.]” 했다. <『논어』 「안연(顔淵)」>

27) 요화(瑤華): 백옥색(白玉色)의 꽃을 말한 것으로, 선화(仙花)를 가리킨다.

28) 幾自慎: 이 구절에 결락이 있다.

29) 명원(名園): 송(宋)나라 이격비(李格非)가 지은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에 부정공원(富鄭公園), 동씨동원(董氏東園), 환계(環谿) 등 명가들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나온다.

30) 붉은 문: 붉은 칠을 한 문이란 뜻으로, 권귀(權貴)나 부호(富豪)의 집을 가리킨다.

雖風氣之淳質
自被於四表兮
匪有喜於勿藥

비록 풍기가 순하고 질박했으나,
질병이 세상 끝까지 퍼졌으니 -결락-
치료하지 않음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
니네.

逮三代之迭興兮
亦操此而濟物
何聖人之一遠
紛毒痛之屢作

삼대(三代)²²⁾가 번갈아 일어나서도 -
결락-
또한 이 방법으로 사람을 구제하였네.
어찌 성인이 한 번 돌아가신 뒤에
분분히 독한 질병이 자주 발생하였는가.
-결락-

欲快於瘳作兮
知幾下而幾茶

막힌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자 하면
몇 번 처방하고 몇 번 멈추는지를 알
아야 하네.

味斯藥之大效
喜從事於木
求一已²³⁾之長生
致之尤酷
秦胡爲乎童女

이 약의 큰 효험을 알지 못하고
일삼기만을 좋아하였네. -결락-
한 사람의 불로장생을 구하려다가
더욱 혹독함을 불러 왔네. -결락-
진시황은 어찌하여 어린이이 시켜 불
사약을 구하였나

漢徒勞於玉屑

한나라는 다만 옥가루에만 수고를 하
였네.

唐已誤於金丹
踵而罔覺
徇私慾以求逞
奄宗社之傾覆
嗟職此之誰

당나라는 이미 금단(金丹)에 잘못되어
이어지는데도 깨닫지 못했네. -결락-
사욕을 좇아 통쾌하고자 하니
하루아침에 종묘사직이 기울었네.
아, 이것을 주관할 사람이 누구였던가
-결락-

恨大藥之未達

위대한 약이 쓰이지 않음이 한스럽구나.
-결락-

爰慷慨以綴辭兮
三叫而擲筆

이에 강개하여 말을 엮으니
세 번 부르짖고 붓을 던지노라.

< 詩三峽行 >

삼협행

橫空積翠欲插天

허공을 가로지른 푸른 산 하늘에 꽂힐
듯하고

開菡萏千萬疊
碧水奔猛注其門

활짝 핀 연꽃은 천 만 겹이로다. -결락-
푸른 물 미친 듯 내달려 그 문에 쏟아
부으니

誰遣長鯨恣呼

누가 큰 고래에게 마음대로 부르짖게
하였나? -결락-

戲巨浪

거대한 물결 가지고 놀고 -결락-

馮夷鬱怒坤靈攝
巫峯十二欲浮去

풍이(馮夷)²⁵⁾가 노여움 쌓아 대지를
끌어당기네.
무산(巫山) 열 두 봉우리가 떠내려갈
듯하고

廣濶濤尤歛
月峽之水最爲險
驚瀉銀河走燁燁
我勝窮崖濱

과도는 더욱 빨리 거두어들이네. -결락-
월협(月峽)의 물살 가장 험하여
놀라 은하수를 쏟아내 환하게 흘러가네.
나는 물가 끝까지 다하고자 하는데
-결락-

勢急洄涎纒一葉
飄然兩腋生羽翰
擬躬自挾
蘇翁巨筆重把手

급한 물살에 일엽편주 뒤집힐 듯하네.
표연히 양 거드랑이에서 날개가 생겨나
몸을 감싸네. -결락

括取新奇富笈笥

소동파(蘇東坡)가 큰 붓을 거둬 손에
쥐고
신기한 경치 모아 많은 시문(詩文) 남
겼다네.

峽源已倒
駛見高崖增岌岌

원류(源流) 이미 쏟아져 -결락-
달리며 높은 벼랑을 보니 그 산세 더
욱 높고 험하네.

< 賦信者言之瑞 >

믿음은 말의 상서로움이다

繫一言之得失兮
關萬事之吉凶
苟不謹於尚口
或起羞而興戎

한 마디 말의 잘잘못이
만사의 길흉에 관계된다네.
진실로 입을 삼가지 않으면 -결락-
더러 수치스러운 일 생기고 전쟁이 일
어나지.

故君子之無易兮
必誠信而不食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만드시 미답게 말하고 식언(食言)하지
않는다네.

警言之相顧兮
若符節之吻合
原一心之虛靈兮
備四端之全德
宣於口而爲聲
乃言辭之所出

언행이 일치하는지 살피고 경계하여
부절(符節)이 꼭 맞는 것처럼 하네.
허령(虛靈)한 한 마음을 근원으로 하여
사단(四端)의 온전한 덕을 갖추네.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고
곧 말로 표출이 되네.

內先度於隘子兮
外自著於掉舌
然此心之易遷兮
蓋躁妄之難止
苟一流於虛僞兮
謬已延於千里

안으로 마음에서 먼저 헤아리고
밖으로 혀를 놀려 절로 드러내네.
그러나 이 마음 쉽게 변하니
경거망동은 그치기 어렵네.
만일 한 번이라도 허위가 되면
잘못됨 이미 천 리까지 이어지리.

生於心兮害於事
寧駟馬之能及
天君之高拱丹府兮
悶樞機之不密
班一函於心官
異群后之圭璧
紐眞實之瑤華
輯無妄以爲飭
按出納於喉舌兮
戒斷邪之蠹賊
適防機巧內萌兮
去詐僞之外作
旣內修之儘正兮
詎厥後之異轍
堅金石兮定四時
確斷斷而不變
嗟一孚於言前兮
事無悔於自踐
辭隨吐而有徵
言從發而可復
儼靜言而庸違兮
焉必中之足說
必思終而後言兮
乃無咎而道接
豈徒裕於一身兮
亦可孚於蠻貊
何彼昏之惑惑兮
紛所發之無稽
昧大寶之在信
謾從事乎璧圭
縱復言而重諾
羌中道而改路
是遺本而務末兮
宜言行之相忤
眇余生之賤遠兮
學說辭於聖門
마음에서 생겨나 일에 피해를 주니
어찌 네 마리 말인들 미칠 수 있겠는가.²⁶⁾
마음은 진실함을 높이 떠받드니
언어가 신중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네.
마음에 -결락-
여러 제후의 예물과는 다르네.
진실이라는 요화(瑤華)²⁷⁾를 매고
거짓 없음을 모아 꾸밈을 삼네.
목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펴서
입의 해로운 도적을 경계하네.
기교가 안에서 싹틈을 막고 -결락-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짓을 제거하네.
내면으로 수양하여 바름을 다하면
어찌 그 뒤에 다른 길로 가겠는가.
사계절 정해짐 금석처럼 견고하니
확고하여 변하지 않네.
아, 말에 앞서 한 걸 같이 미답게 하면
일을 할 때에 후회가 없지.
표현은 조화롭게 징험이 있으니
하는 말은 나오는 대로 실천할 수 있네.
만일 말을 교묘하게 잘하나 행동이 어
긋나면
어찌 꼭 들어맞았다고 하겠는가.
반드시 결과를 생각한 뒤에 말을 해야
하니
그래야 잘못이 없고 이치에 맞는다네.
어찌 다만 한 사람만 충족시키겠는가
또한 오랑캐들에게까지 믿음을 살 수
있으리라.
어찌 멍청한 저들은
근거 없는 말들이 분분하구나.
큰 보배는 신의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예물만 일삼는구나.
설령 거듭 말하고 승낙하였더라도
중도에 길을 바꾸기도 하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에 힘쓰는 것
이니
언행이 서로 어긋남이 마땅하네.
하찮은 내 삶의 미천함이어
성인의 문하에서 말을 배우네.

庶無怠於履實兮
人自信於求言
恐誓言之不固兮
爰作箴以自誦
箴曰
一心之微
萬理繆觸
發輝應物
唯口是託
一苟不慎
害則隨至
信以謹之
曰惟嘉瑞
瑞爲之本
言是末兮
不瑞而言
是謂無益
彼昏不知
徒事言說
賢者知此
以信爲主
幾自愼²⁸⁾
與賢爲友

실천함에 게으름 없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상소(上疏)로 해결할 수 있
다 자신하네.
맹세의 말 견고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잠(箴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네.
잠은 다음과 같다.
미약한 한 마음에
온 이치가 얽혀있네.
그 마음 드러나 사물에 응할 때는
오직 입에 의탁한다네.
한 순간이라도 만일 삼가지 않는다면
해로움이 이르는 곳마다 따를 것이네.
믿음으로 삼가면
오직 상서로움만 있으리라.
상서로움은 근본이요
말은 말단이니,
상서롭지 않은데 말을 하면
이는 무익한 것이네.
저 멍청하여 모르는 자는
다만 말만 일삼네.
현명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주안점을 삼네.
스스로 삼가면 -결락-
현자(賢者)와 벗이 되네.

< 詩遇洛陽名園 >

靑山嶰嶰愁雲沈
東西澗灑波濤翻
繁華蕩盡問無處
盛衰如今知幾番
垣頽瓦壞臺榭傾
慘淡樵牧斜陽村
當年冠蓋盡英俊
華庄處處開朱門
笙笛直過天邊雲
十千美酒盈金樽

> 낙양(洛陽) 명원(名園)²⁹⁾을 만나
푸른 산 높은 데 가을 구름 내려앉고
동서로 흐르는 시내와 강물, 물결은
뒤집히네.
번화함 모두 사라져 물어 볼 곳 없으니
홍망성쇠, 지금까지 몇 번이었는지.
담장과 기와 무너지고 정자도 기울어
해질녘 마을에 나무꾼과 목동만이 쓸
쓸히 있네.
그 당시 벼슬아치들, 모두 영웅호걸이었고
곳곳의 화려한 장원, 붉은 문³⁰⁾을 열
었었지.
생황과 피리소리, 바로 하늘가 구름을
가로막고
만전(萬錢)의 귀한 술, 금 술잔에 가
득 찼다네.

花朝月夕舞佳腰 꽃핀 아침 달뜬 저녁, 아름다운 여인
들이 춤을 추고
玉山半醉憑高軒 선골풍의 인사들, 얼큰히 취해 높은
처마에 기대었다네.
豪華自作物外遊 호사가들 제멋대로 물외(物外)에서 노
닐며
超脫無累忘君恩 초탈하여 메인 것 없이 군주의 은혜를
잊었다네.
一朝王綱不復振 하루아침에 왕조의 기강이 다시 진작
될 수 없으니
此地遺迹悲孤魂 이곳의 남은 자취, 외로운 님만 슬프
구나.
衣冠盡作松下塵 벼슬아치들 모두 소나무 아래 흙이 되
었으니
谷變陵遷朝復昏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월은 변해갔다네.
悲歌非獨弔主人 슬픈 노래는 다만 주인만 조문하는 것
아니니
可憐亂離占中原 가련하구나, 난리 속에 중원을 점거한
것이.

이상에서 <賦大藥>, <詩三峽行>, <賦信者言之瑞>, <詩
遇洛陽名園> 등 4편의 시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이
석간의 친작으로 長江三峽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다거
나 언행이 일치 중요성을 강조한다거나 폐허가 된 낙양
에서의 쓸쓸한 심정을 노래한 懷古詩 인데 반해 大藥賦는
세상을 구제하는 치국의 도리를 의약의 원리에 비유하여
의국론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라 의약문화적인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이러한 정치와 의약을 대비하여 전개하
는 의국론은 조선 선비들의 대표적인 입지의 설명방식 가
운데 하나로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으며, 산문이 아닌 가부
의 형태로 지어진 것이 더욱 특이하다고 하겠다.

III. 결론

이상에서 16세기 활동했던 의가인 이석간이란 인물을 고
증하고 그의 가계와 저술, 그리고 새로 발견된 대약부를 비
롯한 그가 남긴 과부 몇 편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의 내
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이석간경험방』의 저자 李石澗은 16세기 활동했던

명의 이석간(李碩幹, 1509-1574)과 동일인물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의일험방』, 『사의경험방』 및 새로 공개된 『이석
간경험방』의 번역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석간은 중종 4년(1509)에 태어나 선조7년(1547)
까지 활동한 인물로 字는 仲任, 號가 草堂으로 石澗이란 醫
名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에 건너가 황후를 치료한
공로로 황제에게 하사받았다는 天桃 술잔과 유택이 남아
전해지는 등 민간에서 神醫로 알려져 많은 逸話를 남김으
로써 의약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평소 퇴계
이황과 그의 문인들과 교류하였고 의술이 뛰어나 퇴계의
임종시 곁에서 施療를 펼치기도 하였다. 그의 의술은 家傳
되어, 후손인 이의태(李義太, 1700년경)가 『經驗方彙編』을
편찬한 바 있다.

셋째, 연구진이 후손집안에서 소수박물관에 기탁한 이석
간의 유품 가운데서 「대약부[賦大藥]」를 비롯한 4종의 과
부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은 의약인물이 남긴 문예저작물로
서도 보기 드문 것이라 의약문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다.
특히 「대약부」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의약을 공부하
고 관리의 자세가 濟世救民의 의미에서 세상을 제도하려는
醫國論의 입장에 서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와 의약
을 대비하여 전개하는 의국론은 조선 선비들의 대표적인
입지의 설명방식 가운데 하나로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으
며, 산문이 아닌 가부의 형태로 지어진 것이 더욱 특이하
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고문헌 기반 <한
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K13110)”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權好文. 『松巖先生文集』 「遊靑涼山錄」 (影印本).
2. 김남일. 『한의학에 미친 조선의 지식인들-儒醫列傳』. 과
주 : 들녘. 2011.
3. 류희영. 「이석간 경험방」. 황제의학. 1976-1978(6회 연재)

4. 李碩幹, 蔡得已, 朴濂. 『田園必考』(『三醫一驗方』)(影印本).
5. 未詳. 『榮州誌』「蔭仕」. 榮州 : 榮州誌發行所. 1957.
6. 三木榮. 『朝鮮醫書誌』. 日本 : 學術圖書刊行會. 1973.
7. 송지향. 『영주영풍향토지』. 서울 : 여강출판사. 1987.
8. 안상우 외. 『산청한의학박물관도록』. 산청한의학박물관. 2008.
9. 안상우. 「고의서산책286 李碩幹經驗方」. 민족의학신문. 2006. 03. 31.
10. 안상우. 「고의서산책431 石澗集①」. 민족의학신문. 2009. 09. 21.
11. 안상우. 「고의서산책432 石澗集②」. 민족의학신문. 2009. 09. 28.
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서해제』「사의경험방」. 서울 : 평민사. 2004.
13. 영주시. 「儒의 道로 醫의 術을 펴다」.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2011.
14. 오준호, 구현희, 백주현, 안상우. 「食醫心鑑에 담긴 식치의학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10 ; 25(6).
15. 劉爾泰. 『實驗單方』(影印本).
16. 이석간 저(안상우 등역). 『국역 이석간경험방』.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17. 李碩幹. 『李石澗經驗方』(影印本).
18. 채득이, 이석간, 허임, 박림(안상우 외 역). 『국역 사의경험방』. 대전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9. 許浚. 『東醫寶鑑』(影印本).
20. 황연규. 「四醫經驗方の 儒醫 李碩幹 先生」. 한의신문. 2008. 09. 19.
21.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23.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 <<http://jisik.kiom.re.kr/>>